

시인의 마을



고구마를 먹으며

그 누구에게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친숙하다
또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연명하는 밥이다
누군가에게는 먹거리로 여유 있는 심심풀이
간식이다
그렇게 불길불길 사원 짹짹 달콤한 동치미
한 사발이다
호박과 자색 고구마가 절친의 손에서 내게
오던 날
도르르 주르르 턱 밑에 흐르는 이름 모를 영
농조합법인
농부의 웃음이 가득한 호박고구마 마크에 호
뜻한 미소는
하루의 끝을 살아내는 민초의 한 방울 땀보
다 소중한 가족이다
창밖으로 나리는 포근한 눈이 추억의 강이
되는 기나긴 겨울밤이다
가녀린 호롱불과 붉은 화로는 서로를 지키는
따뜻함이 된다
담배 연기 가득 헛기침을 토해내던 아랫목
온기가 따스하다
꺼질 듯 꺼지지 않는 초가집 안방에는 붉은
산수유처럼
밤고구마 밤새만이 밤하늘에 넘실대는 추억
의 한 장면이다

-박여범 시인 '고구마를 먹으며' 전문-

|| 시詩를 담다 ||

겨울이면 더욱 생각나게 하는 간식은 고구마가
최고다. 방장고를 열어 보자. 그리고 김장 김치를
한 포기 쪽쪽 찢어 보자.
지저분하고,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?
거기다가 길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구마에 김

치 한 가닥을 올리자.
군침이 돈다.
먼저, 입 운동을 하자.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
고 흥이 나면, 고구마를 한입 물어보자.
그리고 여유롭게 사진이나 영상기록을 남겨보
자. 생각만 해도 꿀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상의 각
인가?



박여범

웅북중학교 · 시인
문학박사 · 문학평론가

사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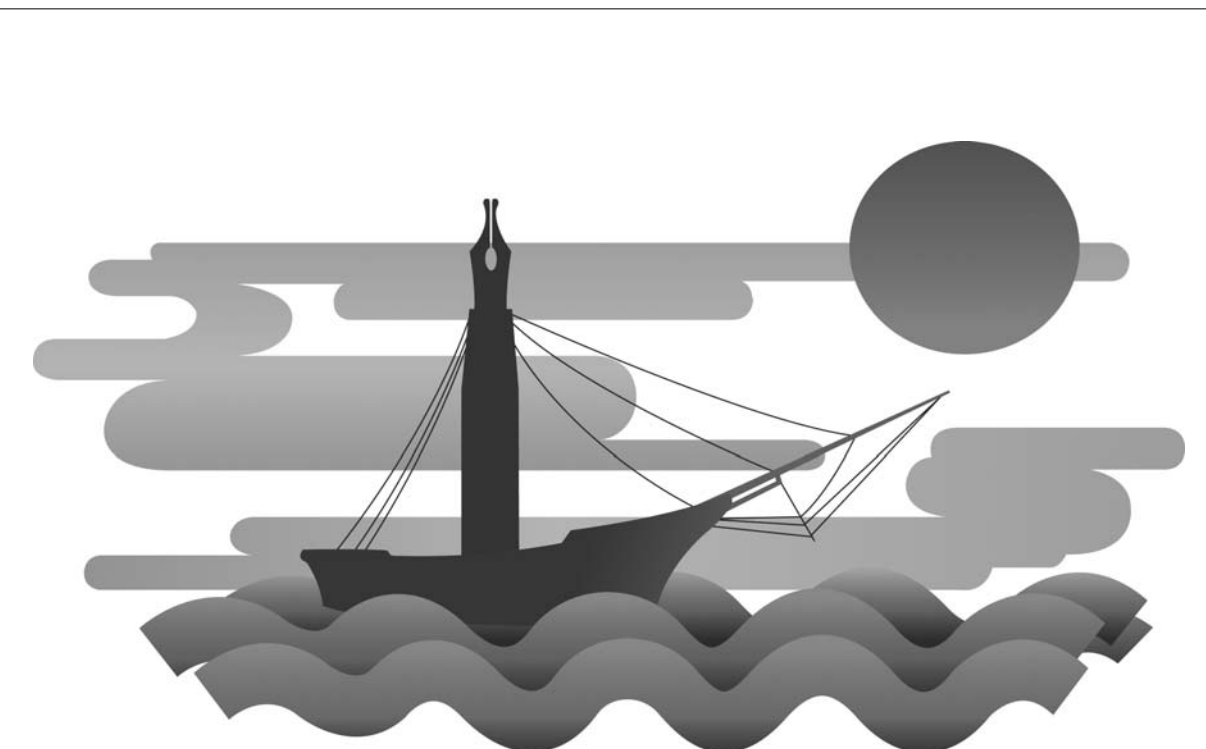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방역패스 논란

코로나19 방역패스 논란이 여
전하다. 방역패스란 백신 예방
접종 증명 혹은 음성 확인서를
말한다. 정부가 20일부터 시행
하기로 했던 방역패스 유효 기
간 설정 정책을 2주 연기해 내
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
다.
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
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방역
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
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. 방역
패스에 6개월의 유효 기간이 적
용될 경우 접종을 완료 후 6개
월이 지나면 다중 이용시설 이
용 등에 제약이 가해진다.
정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
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연말에
방역패스 유효 기간 설정을 적
용하기로 했다. 그러면서 12월
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
의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
해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하
겠다고 전했다.
방역패스가 전면 도입된 것은
연일 확진자가 7000명이 넘게
나오고 있고, 사망자와 중증환
자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.
위드코로나의 흑독한 대가를 치
루고 있는 것이다.
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
나 유전자 증폭(PCR) 검사 음성
결과가 확인돼야 식당, 카페, 술
집 등을 이용할 수 있다. 미접
종자의 경우 혼자서는 식당·카
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적 모임
에도 1명까지 포함 가능하다.
방역패스는 만 12~18세 청소년
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적
용된다.
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은 도서
관과 독서실, 학원 등이다. 그러
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서는
집밖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
다.
청소년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
종을 강제하고 있는 점은 분명
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. 백신
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.
긴급 위급을 낮출 뿐 아니라
위중증·사망을 예방하는 효과
가 90%에 이른다. 그러나 청소년
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부정적
여론이 여전하다. 위드코로나
시대가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
바란다.

막가는 도내 어느 기초의회

지난해 7월 도내 어느 시의회 분
회의장을 난장관으로 만든 사건이
있었다.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비
등했던 비판 여론에 시의회는 해
당 의원들을 제명했다. 그런데 당
시 이 제명이 합당하지 않았다는
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.
지난해 퇴출됐던 해당 의원은 시
의회에 모욕을 드러냈다. 시의회
를 상대로 불법 소송을 제기했고,
법원의 임시 처분으로 지난달 이
미 의원직에 복귀한 상태다.
법원은 아예 제명이 무효라며 의
원의 손을 직접 들어줬다. 제명이
합당했다는 지난 4월 1심 판결이
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.
'플워유지 의무가 있는 해당 시
의원을 징계하는 것까진 나무랄
수 없는데 가장 무거운 제명 징계
는 너무했다'는 결론이다. 물론 제
명하려면 방법 행위가 있어야 한
다.
그러나 '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
관계'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
을 수 없고,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
모호하다는 판단이다. 징계 절차
도 문제 삼았다.
시의회는 당시 언론 보도로 사회
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고 했
다.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원에게
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
다.
남성 의원이 불륜 사실을 일방적
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
입은 거라며, 여성 의원의 잘못을
따지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
다.
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
회 여론까지 고려한 1심이었다.
반면 2심에서는 소명 기회를 박탈
당한 기초의원의 개인적인 역할함
을 달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.
해당 의원은 지난해 제명된 뒤
약 10개월 동안 공백기를 보냈다.
그러나 일단 이번 승소 판결로 그
간 받지 못한 의원 급여도 받을
수 있게 됐다.
비슷한 시기에 제명된 불륜 파동
의 장본인 남성 의원도 마찬가지로
불법 소송을 제기했다. 기초의
회의 최후원의 자정 노력이 끝내
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힐 지 여
부에 관심이 집중된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“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”을 위해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
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
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당신의 기여움을 속 시원하게 굶어 드리기 위해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